

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OCTOBER 2016 No. 8

www.gwangjufc.com



PREVIEW

5번의 최종 승부, 운명을 결정한다!

MANAGER

남기일 감독, “클래식 잔류를 이루겠다”

GWANGJU FC STAR

광주의 중원 사령관 김민혁

홈 폐막전

10월 29일(토)

15:00



vs 성남FC

11월 2일(수)

19:00



vs 포항 스틸러스



문화체육관광부



※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원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광주FC 정규 라운드 RECORDS

2016년 K LEAGUE CLASSIC



광주FC TOP SCORERS



정조국

16득점

선수명	득점
송승민	4
김민혁	3
여름 오도현	2
조주영 주현우	2
김정현 이민기	1
조성준 파비오	1
홍준호	1

33
경기

승 10
무 11
패 12



37 득점



40 실점

광주FC TOP ASSISTERS



김민혁

8도움

선수명	도움
이름	4
조성준 조주영	2
주현우	2
송승민 이종민	1
정조국 정호정	1
조용태 파비오	1

K리그 클래식 득점 순위

순위	이름	팀	득점
1	정조국	광주	16
2	티아고	성남	13
3	아드리아노	서울	13
4	데얀	서울	13
5	양동현	포항	12
6	레오나르도	전북	12
7	산토스	수원	11

K리그 클래식 도움 순위

순위	이름	팀	도움
1	염기훈	수원	12
2	코바	울산	9
3	박기동	전남	8
4	이재성	전북	8
5	케빈	인천	8
6	마르셀로	제주	8
7	김민혁	광주	8

2016년 시즌 기록 비교

	득점	도움	실점	슈팅	코너킥	파울	경고	퇴장
광주FC	1.12	0.73	1.21	9.36	4.61	14.48	2.21	0회
클래식 평균	1.36	0.89	1.36	11.81	4.72	12.95	1.93	11회



5번의 최종 승부 광주FC의 운명을 결정한다!

염원하던 K리그 클래식 스플릿 라운드 그룹A 진출은 무산됐다. 하지만 아직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챌린지 강등을 벗어나기 위한 사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FC는 33번의 정규 라운드에서 10승 11무 12패 승점 41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6위까지 들어가는 그룹A 진출은 실패했다. 6위 상주 상무가 승점 42점이었기에 33라운드에서 승점을 쌓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하지만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다. 광주는 올 시즌의 운명을 결정할 5경기를 앞두고 있다. 바로 스플릿 라운드 일정이다.

9위를 기록한 광주는 7~12위팀이 모이는 그룹B에 남은 5경기를 소화하게 됐다. 5경기를 치러 최종적으로 12위를 기록한 팀은 내년 시즌 챌린지로 강등된다. 11위는 챌린지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한다. 9위라는 순위는 안심할 수 없다.

게다가 7~12위의 승점 차가 촘촘하다. 광주를 비롯해서 7위 성남FC, 8위 포항 스틸러스의 승점은 41점으로 같다. 1경기라도 놓치면 승점 차가 벌어지고 추격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광주보다 아래에 있는 수원 삼성(승점 37점),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5점), 수원FC(승점 33점)와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아차'하는 순간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

남기일 감독은 승점 45점 이상을 얻어야 잔류를 위한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촘촘한 상황으로 볼 때는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 48점은 얻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렇기에 매 경기 결승전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고,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승점은 쌓아야 한다. 패배는 곧 위기로 이어졌고 광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과가 된다.

2016 K리그 클래식 중간 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전북	60	18	15	0	60	35	25
2	서울	57	17	6	10	58	43	15
3	제주	49	14	7	12	60	50	10
4	울산	48	13	9	11	38	43	-5
5	전남	43	11	10	12	38	40	-2
6	상주	42	12	6	15	50	53	-3
7	성남	41	11	8	14	46	46	0
8	포항	41	11	8	14	37	39	-2
9	광주	41	10	11	12	37	40	-3
10	수원	37	7	16	10	45	52	-7
11	인천	35	8	11	14	35	46	-11
12	수원FC	33	8	9	16	34	51	-17

스플릿
그룹A

스플릿
그룹B

광주FC 스플릿 라운드 경기 일정

10월 15일	15:00	vs 수원FC	원정
10월 23일	15:00	vs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
10월 29일	15:00	vs 성남FC	홈
11월 2일	19:00	vs 포항 스틸러스	홈
11월 5일	15:00	vs 수원 삼성	원정



남기일 감독

“클래식 잔류를 이루겠다”

남기일 감독과 광주FC에 있어 K리그 클래식 정규 라운드는 희비가 엇갈린 경기들이었다. 광주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판도를 흔들었지만, 정규 라운드 종료를 앞두고 승점 쌓기에 실패하면서 1~6위 팀이 들어가는 그룹A 진출에 실패했다. 남기일 감독은 올 시즌 목표로 잔류 그리고 그룹A 진출을 세웠다. 그렇기에 진출 실패에 따른 아쉬움도 컸다. 하지만 아직 남기일 감독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남았다. 바로 잔류다. 남은 5

번의 스플릿 라운드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어 잔류를 이루겠다는 마음이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는 한층 더 발전한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플릿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현재의 팀 분위기는?

그룹A 진출이 좌절된 후 분위기는 조금 침체돼 있다. 그래도 가용 인원들로 최선을 다했다. 아

쉬움은 남지만 후회는 없다. 다행히 A매치 휴식이 겹쳐 다음 경기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생각이다.

시즌 내내 과제였던 클래식 잔류 문제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승점 4점 이상만 획득하게 된다면 잔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스플릿 라운드 초반 두 경기서 수원FC와 인천 유나이티드를 만

난다. 승리해서 잔류를 빠르게 확정하고 싶다. 물론 다 승리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무승부 이상은 기록하겠다. 수원FC와 인천을 잡고 싶은 다른 이유는 없다. 스플릿 라운드 초반 2경기 상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는 10위였는데 올해는 7위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수원FC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승리하면 광주 구단 역사상 클래식 최다승(11승)을 경신한다. 그렇다. 수원FC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는 많이 남아 있다. 반드시 11승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12승까지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결정력이 아쉬웠지만 정조국이 복귀하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공격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정조국의 득점왕 가능성이 크다.

정조국의 득점포는 개인적으로 큰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팀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조국이 부상으로 뛰질 못했지만 현재 발목 부상서 완쾌했다. 수원FC전 출전이 가능하다. 본인 스스로 욕심이 있어 더 많은 득점이 기대된다. 팀이 골 가뭄을 겪었는데 정조국의 복귀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조국과 함께 광주에 온 김민혁도 시즌 내내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알던 선수는 아니다. 지난해 몇 번 마주쳐서 최소한만 알고 있던 선수였다. 가능성을 보고 영입했다. 아직 어린 선수라 장점을 보이는데 많이 어색해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뒀고, 또 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했다. 아울러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무언가를 주문하지 않았지만 프로 선수가 경기에 뛰는 즐거움을 알려주려 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성장했고, 이제는 경기를 좀 즐기는 것 같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시즌 중반에 영입한 수비형 미드필더 본즈의 활약상은 어떤가?

팀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합류했기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다. 이찬동이 리우 올림픽 출전으로 대표팀에 차출됐었고, 팀도 침체했을 때 왔다.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료를 위해 뛰다.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도 좋다. 본즈가 들어온 시기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옴이 입대하고, 주장인 여름도 곧 떠나는 데?

지난 여름에는 파비오도 떠났다. 시즌이 끝나면



여름도 떠난다. 구단 여건상 어쩔 수 없고, 겪어야 하는 부분이다. 나는 늘 그랬듯이 항상 시련을 받아드리려 노력한다. 매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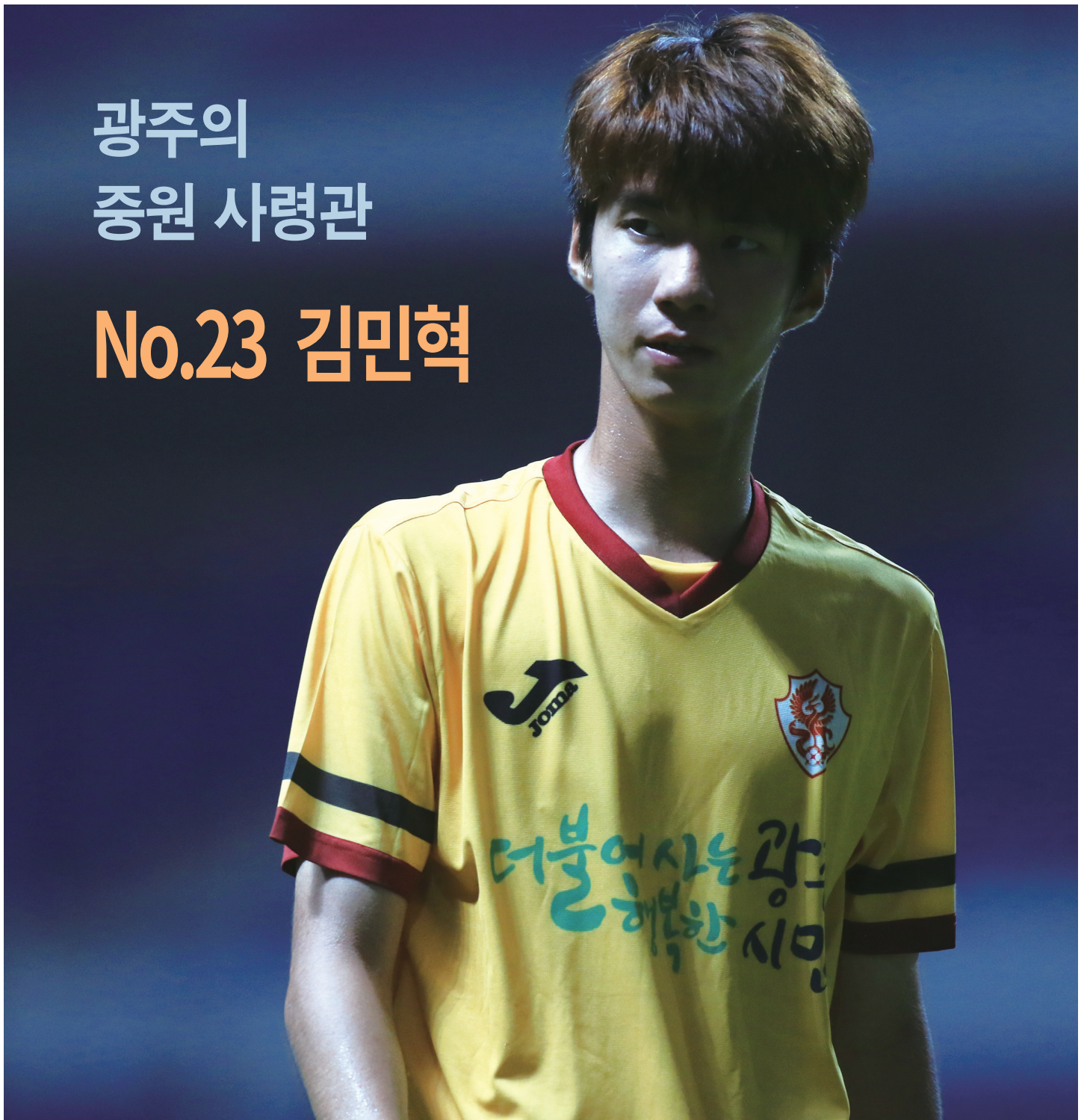
아직 스플릿 라운드 5경기가 남았지만, 올 시즌은 어떠했는가?

광주는 좋은 선수를 갖고 시작한 팀이 아니다. 그래서 성적을 내기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발전에 중점을 뒀다. 선수가 발전해야 팀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결실을 맺은 것 같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기는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많이 찾은 것 같다. 현재는 다들 실력이 많이 늘어서 경쟁력도 갖췄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팀에 패배가 많아서 안 좋은 시기를 겪었다. 중요한 시기에 승점을 쌓지 못해 그룹A에 오르지 못했다. 스스로 되돌아보고 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잔류만을 걱정하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해는 그룹A도 도전했다.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의 중원 사령관

No.23 김민혁



올 시즌 광주FC의 돌풍에는 득점 선두 정조국이 앞장섰다. 그러나 정조국 혼자서는 골을 만들 수 없다. 동료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조력자의 중심에는 지난 겨울 정조국과 함께 광주 유니폼을 입은 김민혁이 있다.

김민혁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격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령관이다. 김민혁이 펼치는 패스 하나에 광주의 공격이 달라진다. 그의 활약은 8개의 도움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민혁의 패스가 있기에 정조국을 비롯한 공격수들이 골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광주의 확실한 중심으로 자리잡은 김민혁은 아직 배가 고프다. 그가 원하는 목표인 15개의 공격포인트 그리고 광주의 시즌 7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민혁은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좋은 분위기를 시즌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팀 분위기는 어떠한가?

들뜬 분위기는 아니지만, 남은 일정서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분위기다.

목표했던 그룹A 진출에 실패했는데?

우리의 기존 시즌 목표는 강등 탈출이었다. 상승세가 계속 되어서 그룹A까지 노려봤다. 지난해보다 팀이 발전했기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

천정팀인 FC서울과의 33라운드를 이기지 못해 그룹A 진출이 좌절됐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반가웠다. 이번 시즌에도 이미 두 차례 만났지만 중요한 일전이어서 그랬는지 더욱 반가웠다. 그룹A 진출 여부를 떠나 서울에 승리하지를 못했기에 승리하고 싶었다.

그러지를 못해 아쉽다.

올 시즌을 앞두고 서울에서 정조국과 함께 광주로 이적했는데?

이적 당시 조국 형과 함께 광주의 전지훈련 장소로 바로 내려갔다. 내려오는 동안 조국 형이 농담 삼아 “나는 골을 많이 넣을 테니 네가 도움을 많이 해”라고 말하셨다. 그게 현실이 돼 기분이 좋다.

올 시즌 물 오른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비결이 있다면?

특별한 비결보다는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받았기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출전 시간이 적었지만 여기서는 남기일 감독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다. 그 기대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과로 나온 것 같다.

주전 미드필더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자신이 보는 광주의 매력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점은 선수들끼리 단합이 잘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족 같은 분위기다. 특히 경기장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힘이 매력이다. 경기장 내에서 서로를 위해 한 걸음씩 더 뛰려는 희생 정신이 광주 돌풍의 비결인 것 같다.

남기일 감독은 어떤 사람 같나?

내게 정말 잘해주신다. (웃음) 또 기회도 많이 주신다. 가끔 내가 실수를 해도 비난보다는 격려와 응원으로 자신감을 북돋아주신다. 경기 전 항상 “실수해도 되니까 자신감 갖고 공격적으로 임해”라고 얘기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 실수를 해도 공격포인트로 보답할 수 있는 것 같다.

팀 내 믿고 의지하는 선수는?

조국 형, (이)종민 형, (조)용태 형 등 베테랑 형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경기장을 떠나 형들의 존재감은 크다. 특히 경기장 안에서 베테랑 형들과 함께 뛰면 무게감이 다르다. 송승민, 김영빈, 이찬동 조주영 등과도 친하게 지낸다.

이제 스플릿 라운드 5경기가 남았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아무래도 지난해 경기를 많이 못 뛰었기에 이번 시즌은 최대한 많이 뛰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올해 공격포인트 10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3골 8도움으로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 남은 경기에서 15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싶다. 또 팀이 7위로 시즌을 마감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 경기력으로 보답할 테니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23

KIM MIN HYEOK

김민혁

김민혁의 포지션



생년월일	1992.08.16
신장/체중	183cm/71kg
포지션	미드필더
출신교	광운대
클럽경력	서울(2015)-광주(현재)
K리그 통산	38경기 3득점 8도움



감독

남기일



수석코치

이정효



코치

마철준



골키퍼 코치

기우성



피지컬 코치

길레미



주치의

이준영



1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2 DF 정호정

1988.09.01 180cm/76kg



3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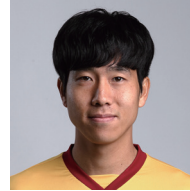
5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6 DF 오도현

1994.12.06 188cm/82kg



7 MF 여름

1989.06.02 175cm/69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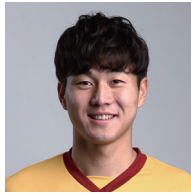
8 DF 이도툼

1989.09.02 177cm/70kg



9 FW 정조국

1984.04.23 186cm/78kg



11 MF 조성준

1990.11.27 176cm/67kg



12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13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14 DF 김진환

1989.03.01 186cm/78kg



16 MF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17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18 DF 정동윤

1994.04.03 175cm/7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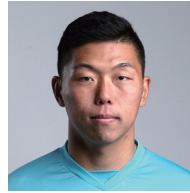
19 MF 박선홍

1993.11.05 176cm/76kg



20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21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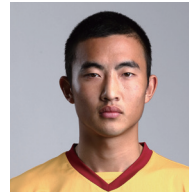
22 MF 조용태

1986.03.31 180cm/69kg



23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24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25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26 FW 김성현

1990.07.01 175cm/68kg



27 MF 김진수

1995.02.28 182cm/77kg



28 MF 김익신

1992.11.26 181cm/7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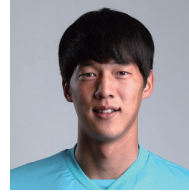
29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30 FW 심광욱

1994.01.03 175cm/66kg



31 GK 황인재

1994.04.22 188cm/80kg



32 FW 김상욱

1994.01.04 178cm/75kg



33 MF 와다

1994.10.30 172cm/60kg



34 MF 본즈

1990.02.07 187cm/73kg



40 MF 이찬동

1993.01.10 183cm/80kg

광주FC SNS 채널



@GWANGJU_FC



www.facebook.com/gwangjufc



plus.kakao.com/home/@광주축구



2016시즌 홈경기 일정

NEXT

홈 폐막전

10월 29일(토)
15:00



vs 성남FC

11월 2일(수)
19:00



vs 포항 스틸러스